

박람회 예찬



신상 용의

벤처나라

틈틈이 박람회장을 찾는다. 30대 초반에 직장인에서 사업가로 전환하면서 본격적으로 산업전시회를 관람하기 시작했다. 자주 찾다 보니 어느덧 취미가 되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9호선 봉은사역에 위치한 '코엑스(COEX)', 중소기업을 위한 전시장인 3호선 학여울역 '세텍(SETEC)', 푸드테크 분야 박람회에 특화된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aT센터', 지난해 개관해 최신 편의시설과 삼성동 코엑스 대비 1.8배 큰 규모를 갖춘 9호선·공강철도 마곡나루역에 있는 '코엑스 마곡'을 주로 간다.

대부분의 벤처·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그렇듯이 필자 또한 고객사 영업과 IR(투자 설명회) 라운드 등 하루에도 수차례 방방곡곡 현장을 누빈다. 외근 나갔을 때 이동 동선에 맞춰 잠시 짬을 내어 박람회장을 방문한다. 시간 약속은 신뢰이기 때문에

외부 미팅을 갈 때는 교통 상황 변수가 적은 지하철을 이용한다. 앞서 전시회장들을 소개할 때 알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 지하철역과 연결되어 접근성이 훌륭한 점도 자주 찾게 되는 이유 중 하나다.

박람회장을 가면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다. 우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산업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정보의 홍수 시대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다. 지금도 손에서 떼지 못하는 스마트폰 화면만 열어도 각종 최신 트렌드들이 쏟아진다. 하지만 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별하는 것이 관건이다.

매주 테마별로 기업과 기술을 전시하는 박람회장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최적의 플랫폼이다. 온라인으로는 알 수 없는 실제 제품의 질감, 기술의 작동 방식, 서비스의 운영 모습을 관계자의 시연과 설명으로 보고 들으며 경험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 뿐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도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와 비교하며 개선점을 발견하는 훌륭한 '경험 자산'이 된다.

박람회 참여한 기업들 부스에서 직접
사람을 만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제휴 파트너도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때 자연스럽게 필자가 판매하는 렌틸전환(RX) 솔루션을 설명하다 보면 신규 고객사를 유치하기도 한다. 온라인에서는 얻기 힘든 오프라인 박람회와의 장점이다.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옳다는 것을 체감한다.

건강도 챙기는 건 덤이다. 지하철을 이용하고, 전시회장을 돌아다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 만보수를 훌쩍 넘기게 된다. 이처럼 경험 자산을 얻고, 협업 파트너도 찾고, 고객사 영업도 할 수 있는 등 실질적인 이득을 안겨주는 박람회的特点是 무수히 많다. 참! 웬만한 박람회는 사전 등록을 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최고의 가성비로 자기 계발과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다.

지하철역에 들어가기 전 오랜만에 만난
무가지 신문을 집어 들었다. 신문을 읽다
가 금주의 전시·박람회 정보를 모아둔 코
너가 눈에 들어온다. 지하철에서는 스마
트폰보다 신문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앞
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무가지 신문
을 지하철역에서 자주 만나면 좋겠다.

/프리핀스 대표

6.27 부동산 대책, 억제보다 조율이 필요하다



기지 수첩

전 지 윤
〈금융부〉

6·27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남긴 것은 거래 절벽과 실수요자의 허탈감이었다. 고강도 대출 규제는 발표 다음 날부터 전면 시행됐고, 그 즉시 서울 아파트 시장은 빠르게 식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칼날은 시장의 열기를 식히는 데까지는 성공했다. 그러나 칼끝이 향한 곳이 적절했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정부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은 전면 금지했다. 1주택자 역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도 예외는 아니
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80%

에서 70%로 낮아졌고 6개월 내 전입 의무
까지 생겼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실수요자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세자금 대출까지 위축되면 서민층 주거 안정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뛰어넘는 강도 높은 여신 규제”라며 “자기자본 여력이 부족한 수요자는 시장에서 밀려나고, 자산가만 살아남는 구도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작 잡아야 할 투기 수요는 비껴가고, 실수요자만 옥죄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의 문도 생긴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소득이 낮은 계층은 DSR 통과도 어렵고, 정책금융 활용에도 한계가 있다”며 “6억원 한도 안에

서도 대출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심사 중이던 계약자조차 차주가 바뀌면 한도 축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신축 아파트 분양자들도 비슷한 혼란을 겪고 있다. 잔금 대출에 차질이 생기면서 자금 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장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는 억제보다 조율이 필요하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막히고 자산가는 비껴간 이번 대책은 시장의 불균형을 더 키울 수 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치밀한 정책 설계다. 수요를 조이기 전에 공급을 확실히 만들고 투기를 차단하기 전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의 숨통부터 살피야 한다. 이번 규제가 시장에 어떤 결과를 남길지는 실수요자를 고려한 정책 조율과 보완 방향에 달려 있다.

/jjw13@metroseoul.co.kr

/jjw13@metroseoul.co.kr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 훈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6	4			9
							3	7
	1	5	9	7				8
							8	
1		9				5		4
	5							
7				8	9	6	4	
3	9							
5				2	1			7

5			6			1		4
						2		
4	1		8	3				
				1		3		6
		1	3		8	5		
3		7		2				
				8	9		3	1
		6						
9		2			4			7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 및 컬러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2	6	9	1	2	8	4	9
2	1	8	9	4	7	9	6	8
9	4	9	6	8	8	1	2	2
1	6	8	8	4	7	2	9	9
4	2	9	2	8	9	6	8	1
9	8	2	1	6	9	2	8	4
8	9	4	8	2	6	9	1	2
2	8	1	2	8	9	8	4	9
6	9	2	4	9	1	8	2	8

2	8	9	4	9	1	2	8	6
2	4	6	8	3	9	8	1	9
1	8	9	6	8	2	9	4	7
8	1	4	9	2	6	2	9	8
6	2	9	4	8	4	1	9	2
9	2	8	8	5	1	2	4	6
9	9	2	2	8	8	6	1	4
8	6	2	1	9	4	8	2	9
4	8	1	2	6	9	8	2	9

김상회의 四季

돈이냐 지위냐



패기 넘치는 한 직장인이 상담을 왔다. 그의 고민은 단순하면서도 어려웠다. 돈과 지위, 어떤 걸 목표로 해야 할까요? 어느 하나를 포기하는 것도 싫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갈등이다. 답은 그의 사주에 있었다. 필자는 상담자에게 지위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사주에 비겁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이다. 비겁은 통찰력을 제공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비겁이 발달한 사주는 인간관계가 풍부하고 넓으며 유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즐기고 혼자보다는 함께 일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낸다. 비겁은 또한 사람을 부리고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과 통솔력을 상징한다.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을 보면 비겁이 발달한 경우가 많은데 무엇보다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자신이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욕구가 크다. 남들의 앞에 서서 능력을 발휘하고 무언가를 이루어내며 성취감을 느낀다. 만약 그런 비겁 사주가 처음부터 돈을 목표로 삼는다면 돈을 벌더라도 만족감을 느끼기 어렵다. 일시적으로 만족은 얻을지라도 결국에는 다시 지위를 갖고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 하는 성향 때문에 방향을 바꾸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은 처음부터 지위를 목표로 삼는 것이 현명하다. 지위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큰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는다. 성향에 맞는 일을 즐겁게 하면 돈도 저절로 따라온다. 팔자에 맞는 직업을 찾아 그에 걸맞은 삶의 방향을 설정해야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 자신의 사주와 성향을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길을 선택하다 보면 진정한 성공이자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열린다.

‘김상회의 사거’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중
인 색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1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17호	